

폭염에 지친 대한민국... 태극전사 선전에 더위 잊었다

2024 파리 올림픽 12일 폐막

금 13·銀 9·銅 10... 종합 8위
사격·펜싱·양궁 순위 경쟁 주도
태권도·배드민턴·유도 등 선전
높이뛰기·체조·핸드볼 등 고전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인
의 축제' 올림픽이 17
일간의 열전의 막을 내

렸다. 태극전사들은 1976 몬트리올 올림픽(50명) 이후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4명의 선수단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힘을 불어 넣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의 폐회식 기수로는 태권도의 박태준(경희대)과 복싱의 임애지(화순군청)가 나섰다. 박태준은 이번 대회 태권도 남자 -58kg 정상에 오르며 체급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임애지는 복싱 여자 54kg(플라이급)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복서 최초로 올림픽 시상대에 섰다.

박태준과 임애지가 한국 선수단을 대표해 폐회식에 나섰지만 이번 대회 태극전사들의 선전의 중심에는 '총·갈·활'로 불



12일(한국 시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리는 사격과 펜싱, 양궁이 자리 잡았다. 이 세 종목에서만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쓸어 담으며 전체 종목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을 책임졌다.

양궁에서는 메달을 획득한 11개 종목 중 최다인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가 나왔다. 남·여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양궁에 걸린 금메달 다섯 개를 싹쓸이했고, 은메달과 동메달도 추가했다.

쌍총이의 중심에는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이 자리 잡았다. 김우진은 남자 단체전에서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과 김

메달을 합작한 뒤 개인전에서도 정상에 올랐고, 혼성 단체전에서는 임시현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3관왕을 완성했다.

임시현은 여자 단체전에서 전현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과 금메달을 합작한 뒤 개인전을 제패했고, 혼성 단체전에서 김우진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3관왕에 올랐다. 남수현은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이우석은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사격에서는 종목 사상 최다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가 탄생했다. 오예진(IBK기업은행)은 10m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반효진(대구체고)은 10m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 양지인(한국체대)은

25m 권총 여자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금지현(경기도청)-박하준(KT) 조는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김예지(임실군청)는 10m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조영재(국군체육부대)는 25m 권총총사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펜싱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가 나왔다. 오상욱은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른 뒤 단체전에서는 박상원(대전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도경동(국군체육부대)과 금메달을 합작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펜싱 사브르 2관왕에 올랐다.

최세빈(전남도청)과 전은혜(인천중구

청), 전하영, 윤지수(이상 서울시청)는 사브르 여자 단체전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으나 석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태권도와 배드민턴, 유도 등에서도 선전이 이어졌다. 태권도에서는 박태준에 이어 김유진(울산시체육회)이 여자 -57kg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다빈(서울시청)은 여자 +67kg 동메달을 더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을 제패했고,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 조가 혼합 복식 은메달을 수확했다.

유도에서는 허미미(경북도체육회)가 여자 -57kg, 김민중(양평군청)이 남자+100kg 은메달을 수확했고 이준환(용인대)이 남자 -81kg, 김하윤(안산시청)이 여자 +78kg 동메달을 보낸 뒤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육상 높이뛰기와 체조, 핸드볼 등에서는 노메달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안았다.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용인시청)은 예선을 공동 3위로 통과하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승에서 7위에 머무르며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체조에서는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였던 여서정(제천시청)이 도마 예선 4위로 결승에 올랐으나 경기 직전 어깨 부상을 입으며 7위에 그쳐 아쉬움을 안았고,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조별 예선 1승 4패로 5위에 그쳐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8강 티켓을 얻지 못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파리 올림픽... 한국체육 비상 신호탄”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순위 8위. 전남 선수들의 좋은 성적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의 파리 올림픽은 낭만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23회 LA올림픽 보다 적은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규모 뿐만 아니라 성적 또한 최저 성적을 예상하는 등 대회에 출전하기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체육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 또한 심화되어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 또한 걱정이 많았다.

앞선 대회와 달리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장 멘트가 북한으로 소개되면서 IOC의 국제적 실수에 국민적인 공분까지 샀다.

다행히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 전화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일단락됐지만 씁쓸한 기분을 안고 대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기세로 여러 악재를 돌파했다. 대회 둘째날 사격 공기소총 혼성전 은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펜싱 오상욱이 우리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동시에 개인 그랜드슬램의 대기록

을 달성했다.

이어 순천시청 남수현이 맹활약한 양궁 리커브 여자단체전의 10연패, 나주 출신 안세영도 한국 배드민턴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일궈내며 종목별로 각각 최고의 성적들을 새로이 써내려갔다.

특히 사격과 양궁, 펜싱,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신·구조화를 통한 세대교체는 메달 획득보다 더 값진 성과가 아닐까 싶다.

한국체육은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한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전문체육의 경기력 하락세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사상 최저 금메달과 최저 순위, 줄곧 2위 자리를 고수했던 아시안게임에서도 최근 일본에 자리를 빼앗기면서 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체육의 비상을 위한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올림픽 참관을 통해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지도자들이 걱정없이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전남의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계육성 강화, 우수선수 지원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뭉쳐준 파리 올림픽의 선전이 현 체육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면서 LA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한다.

‘3연속 루징시리즈’ 위기의 KIA, 서울 6연전 떠난다



KIA타이거즈가 13일부터 키움히어로즈와 원정 주중 3연전, 16일부터 LG트윈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위즈와 맞대결에서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

13~15일 키움전·16~18일 LG전

2위 LG에 네 경기 차 맹추격 허용 네일 주 2회 선발 등판으로 승부수



키움히어로즈와 두산베어스, KT위즈까지 3연속루징시리즈에 빠지며 우승 도전에 위기를 맞은 KIA타이거즈가 서울 원정 6연전에 나선다. 키움과 LG트윈스를 상대로 최소한 위닝시리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KIA는 지난주 KT위즈와 주중 홈 3연전에서 1승 2패로 루징시리즈를 떠안았다. 이어 삼성과 주말 홈 3연전에서는 1경기가 우천 취소된 가운데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앞서 키움에 1승 2패로 루징시리즈, 두산에 3패로 스윙을 당한 뒤 한화와는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KIA는 3연

속 루징시리즈에 빠졌다. 이 사이 2위 LG가 지난주 4승 2패를 거두며 거센 추격을 해왔고, 승차는 4경기까지 좁혀졌다.

KIA로서는 올 시즌 우승 도전에 가장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된 상황이다. 분위기가 보름 이상 가라앉아 있고, 이번 주에는 LG와 맞대결도 예정되어 있어 만약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 선두 수성도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타선 침체와 수비 허점이다. 최형우가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KIA는 지난주 팀 타율이 0.265로 8위에 그쳤다.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682로 가장 낮았고, 다섯 경기에서 팀 득점이 17점에 그쳤다.

반면 팀 자책점은 3.42로 두 번째로 낮았다. 다섯 경기에서 허용한 27실점 중 자책점이 19점에 그쳤기 때문인데 수비 실책 아홉 개를 쏟아내면서 공짜 점수로만 8점을 줬다는 의미다.

우승 도전에 승부처를 맞이하면서 이번

2024 KBO리그 순위		(12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10	63	45	2	0.583	-
2	LG	108	58	48	2	0.547	4
3	삼성	111	58	51	2	0.532	5.5
4	두산	114	58	54	2	0.518	7
5	SSG	110	54	55	1	0.495	9.5
6	KT	110	53	55	2	0.491	10
7	NC	107	49	56	2	0.467	12.5
8	롯데	105	47	55	3	0.461	13
9	한화	107	48	57	2	0.457	13.5
10	키움	108	48	60	0	0.444	15

호 감독도 승부수를 띄웠다.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서울 6연전의 첫 경기인 13일 키움전에 김도현이 등판해야 하는데 제임스 네일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선발 카드인 네일에게 주 2회 등판을 맡기겠다는 의미다. 전문 선발 자원이 아닌 김도현이 주 2회 등판을 소화할 경우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도현은 선발 로테이션을 한차례 거를 확률이 높다. 네일-황동하-양현종-라우어-김도현 순서로 재편된 상황인데 김도현은 지난 11일 삼성전에 구원 등판해 2.2이닝 동안 36구를 소화했다.

타선에서는 30홈런-30도루를 앞둔 김도영의 부활이 절실하다. 김도영은 지난주 다섯 경기에서 15타수 3안타에 그쳤다. 상대 투수들이 기록을 의식하고 승부하면서 7볼넷을 얻어냈지만 타격감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였다.

한규빈 기자